



제5장

지역 간 자원이동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역도 성장을 하려면 타 지역과의 교역이 활발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지역이 특정상품에 특화해 생산하고 수출하는 근본적 이유를 잘 이해하면 그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한 국가 내에서 지역화된 자원 외에는 대부분의 자원이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지만, 국제무역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전통적으로 국가 간에는 상품의 이동이 자유롭지만 생산 요소는 이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가정하고 모델을 개발해 왔다. 실제로 한 국가 내에서 지역 간 교역은 국제무역보다 훨씬 자유롭게 이루어지는데, 이는 주로 거리상의 이점 뿐만 아니라 제도적 요인과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이 없는 단일통화, 무관세장벽 등의 장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화·세계화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경제가 개방되고, 국가 간 경제통합이 늘어나 국가 간의 경제적 국경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서 학문적으로도 지역경제학과 국제경제학 사이에 이론적 구분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 실제로, 거대한 다국적기업이 출현하여 세계 각 국가로 진출함에 따라 세계 국가들 간에 자원과 상품의 이동이 과거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있다. 더구나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거대한 경제통합체의 출현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직도 국가 간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의 지역 간이라도 자원의 이동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자원들의 지역 간 이동¹⁾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본다.

제1절 국제무역과 자원의 이동

지역 간 자원이동에 관련된 이론은 국가 간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된 국제무역이론들을 많이 인용한다. 이러한 이론들로는 스미스(Smith)의 절대우위론과 리카도(Ricardo)²⁾의 비교우위론 등이 있다. 전자는 각 국가들이 자국에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는 상품을 생산해 교환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고, 후자는 한 국가가

1) 실제로 지역 간 자원이동을 가정하면 헷서-오린이 주장한 한 지역의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을 확정할 수 없게 되어 헷서-오린 정리는 실패한다. 즉, 좀 더 현실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기본가정을 완화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2) Ricardo, 1817, *The Principle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는 상품을 생산하여 타국과 교환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교우위이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비록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모든 면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중 상대적으로 생산에 우위가 있는 상품을 특화해 생산하여 다른 국가와 교환을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뿐 아니라 주사도 간호사보다 훨씬 잘 놓는다고 하자. 이 경우에 의사는 간호사보다 진료행위뿐 아니라 주사 놓는 것도 간호사보다 절대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의사가 둘 다 하는 것이 더 이익일까? 아니면 의사가 둘 다 잘하더라도 주사는 간호사에게 맡기고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것이 더 이익일까? 비교우위론에서는 의사가 간호사보다 주사를 더 잘 놓더라도 의사는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며, 의사에게도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이때 의사의 비교우위는 환자의 진료이며, 간호사의 비교우위는 주사를 놓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비교우위이론에서는 각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그들이 생산에 우위가 있는 혹은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에 특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에 대해 헤셔(Heckscher)와 오린(Ohlin)³⁾은 만일 한 국가가 상대적으로 특정한 생산요소가 풍부하다면, 그 풍부한 요소를 투입물로 많이 사용하는 상품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헤셔-오린의 제1명제인 요소부존이론(Factor-Proportion Theory)이라 하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그 국가에 풍부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생산해 수출하고, 희소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수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질 좋은 토양과 풍부한 강수량을 가진 국가는 농산물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어 농산물을 생산·수출하고, 석유가 많이 나는 국가는 석유제품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어 이들 제품을 생산해 수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헤셔-오린의 주장 이면에는 비록 생산요소는 이동할 수 없지만, 그들을 국가수출품에 투입하여 생산하여 수출함으로써, 풍부한 생산요소가 실질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이러한 무역을 통한 상품의 흐름은 다른 한편으로 상품가격뿐 아니라 자원의 가격

3) Heckscher, 1919, "The Effect of Foreign Trade on the Distribution of Income". Ohlin, 1933, *Interregional and International trade*.

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동이 풍부한 국가는 (나머지 세계국가에 비해) 무역 개시 전에 낮은 임금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노동집약적 생산물을 수출하게 됨으로써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임금을 증가시킨다. 반대로 노동이 부족한 국가는 노동집약적 생산물을 수입할 것이며, 이에 따라 노동수요의 압력이 완화되어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결국 상품의 이동은 종국적으로 생산요소의 가격을 동일화시키게 된다. 이것이 헉서-오린의 제2명제인 요소가격 균등화 법칙(the Law of Factor Price Equalization)이다.

그러나 레온티에프(Leontief)⁴⁾는 1947년 미국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한 결과 헉서-오린 이론의 예측과 반대 결과가 나온 것을 발견했는데 이를 레온티에프 역설(Leontief's paradox)이라 한다. 그는 1947년 미국의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와 무역자료를 이용하여 헉서-오린 정리의 제1명제인 생산요소부존정리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미국이 일반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국가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노동집약적 재화를 수출하고 자본집약적 재화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레온티에프는 미국 노동자들의 노동의 생산성이 타국 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에 비해 3배가량 높기 때문에 노동의 질을 생각하면 미국은 오히려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위의 역설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연구결과와 해석은 그 후 많은 논란과 실증적 검증을 불러왔다.⁵⁾

한편 스톨퍼(Wolfgang Stolper)와 사무엘슨(Paul Samuelson)⁶⁾은 요소시장의 완전경쟁을 전제로 미국이 저임금의 후진국과 자유무역을 하면 미국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수준이 점차 하락해 장기적으로 양 국가의 임금이 균등화된다고 하여 헉서-오린의 제

4) Leontief, 1954, "Domestic Production and Foreign Trade : The American Capital Position Reexamined". Leontief, 1956, "Factor proportions and the Structure of American Trade; Further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Leontief, 1969, "Domestic Production and Foreign Trade".

5) Moroney and Walker 1966, "A Regional Test of the Heckscher-Ohlin theore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4, pp. 573-586. Estle, 1967, "A more conclusive regional test of the Heckscher-Ohlin hypothe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5, pp. 886-888. Dixon, 1973, "Regional specialisation and trade in the UK",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20, pp. 159-69. Klassen, 1973, "Regional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13, pp. 97-105. Swales, 1979, "Relative factor prices and regional specialisation in the United Kingdom",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26, pp. 127-146. Horiba and Kirkpatrick, 1981, "Factor endowments, factor proportions and the allocative efficiency of US interregional trad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3, pp. 178-87. Coughlin and Fabel, 1988, "State factor endowments and exports : an alternative to cross-sectional stud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0, pp. 696-701.

6) Stolper and Samuelson, 1941, "Protection and Real Wage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9, No. 1 pp. 58-73.

2명제를 지지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같은 고임금 수준의 국가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정책이 유리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호관세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이 같은 주장은 차후 보호무역주의자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미국 노동운동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제2절 지역 간 자원이동과 자원가격

앞의 절에서는 국제 간 무역이론의 핵심내용을 간략히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이론들은 주로 입지문제나 수송비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간 교역원리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국제무역에서 사용하는 이론들은 자원이 국가 간에 이동하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개발된 이론들이지만, 한 국가 내의 지역 간에는 완전한 자원이동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모델들을 개발한다. 실제로 국가 간에 생산요소의 이동보다는 국가 내의 지역 간 생산요소 이동에 장애물이 훨씬 적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무역 이론들을 국내 지역 간 교역에 적용하려면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하다.

먼저 완전한 정보와 이동비용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지역에 있는 생산요소는 자연히 수익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림 5.1>은 이러한 자원이동을 보여 준다. 이제 B와 A 두 지역이 있고, 초기에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가 B 지역보다 A 지역이 더 크다고 하자. D_A 와 D_B 는 자원에 대한 A 지역과 B 지역의 수요곡선을 나타내고, S_{1A} 와 S_{1B} 는 초기의 A 지역과 B 지역의 자원 공급곡선을 나타낸다. B 지역이 A 지역보다 자원이 더 풍부하므로 자원 공급곡선이 더 우측에 위치하고, 초기의 자원의 가격은 자원이 희소한 A 지역에서 더 높게 형성된다($P_A > P_B$). 이러한 가격 차이는 자원이 B 지역에서 A 지역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한다. A 지역에는 자원이 계속 유입됨으로써 자원의 공급곡선이 S_{1A} 에서 S_{2A} 로 늘어나고, B 지역에서는 자원이 계속 유출되어 공급곡선이 S_{1B} 에서 S_{2B} 로 줄어든다. 이러한 자원이동은 양 지역 모두 자원가격이 P^* 과 같아지면서 중단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자원이동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동비용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이주지에서의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에서 이동비용을 뺀 것의 현재가치가, 이동하지 않고 원래 지역에서 벌어들일 미래소득의 현재가치보다 적다면 이동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원이 A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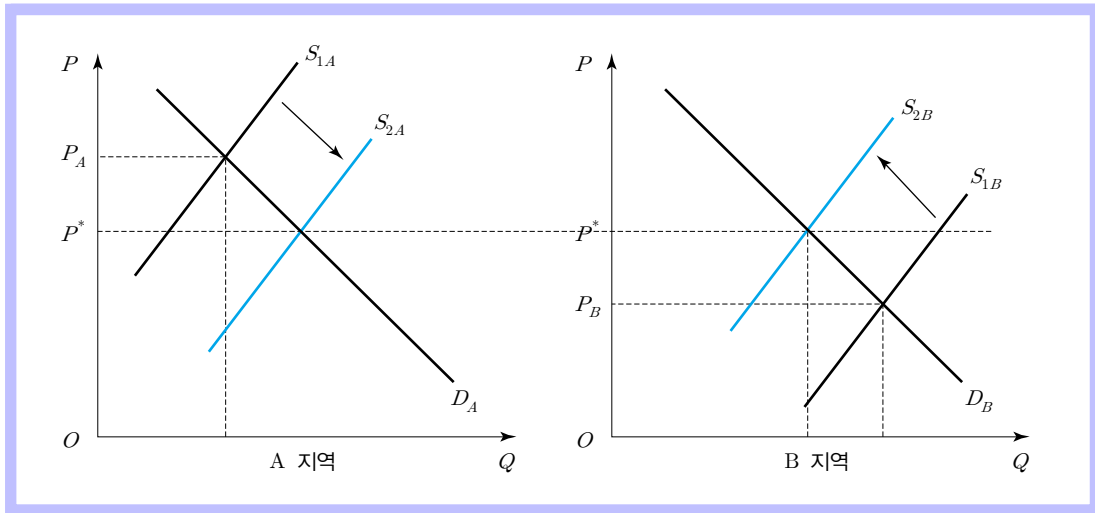


그림 5.1 자원의 이동

A 지역에서 이동 후 벌어들일 수 있는 미래의 추가적 수익의 현재가치가 이동비용보다 더 커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가치를 현재시점에서 추정하기란 쉽지 않다.

자원의 이동은 낮은 요소가격을 가진 지역에서 많은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사람에게에는 이익이 되지만, 높은 요소가격 지역의 자원소유자에게는 손해가 된다. 이동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 둘 중 누가 더 많은지를 추정하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자원이 그들의 한계생산물 가치에 따라 지불된다고 가정한다면, 자원의 이동은 총생산물을 늘릴 것이다. 일반적인 경제이론에서와 같이 자원의 가격이 그들의 한계생산물 가치와 같다고 하면, A 지역에 있는 자원의 가격이 높으므로 B 지역에 있는 자원보다 높은 한계생산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원이 B 지역에서 A 지역으로 이동해 가면서 자원의 한계생산가치가 늘어나는데, 이는 국가의 총생산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⁷⁾

〈그림 5.1〉에서는 수요가 반응하지 않는 것을 가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한 지역의 높은 자원가격은 높은 비용의 자원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 지역으로부터 외부로 이동해 나가는 것을 유도한다. 즉, 높은 자원 가격 지역에서는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이러

7) 실제로 B 지역의 한계생산가치는 올라갔지만 A 지역의 한계생산가치는 내려갔으므로 그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이동은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이유는 뒤의 〈그림 5.2〉와 〈그림 5.3〉에서 설명된다.

한 수요의 이동 또한 가격 차이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자원의 이동을 통해 자원의 가격이 동일화된다는 것은 주로 신고전학파(neo-classical school)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할 것이다. 즉, 요소 가격의 지역 간 격차나 수요반응이 지역 간 요소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맞지만, 그 외에도 언급되지 않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요소 이동에 영향을 미칠 것은 확실하다. 요소의 질도 각기 다르며, 특히 노동의 경우 수많은 상이한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용기회도 지역 간 차이가 클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가정에 기반한 신고전학파 모델은 예측력이 떨어지는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면서 다음 절부터는 주요한 생산요소들 — 자본, 노동 그리고 혁신 — 의 지역 간 이동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3절 자본의 이동

자본의 이동에 대한 논의는 종종 ‘자본’이 무엇인가라는 정의 문제로 혼란에 빠질 때가 많다. 흔히 ‘자본’이라고 하면 화폐나 혹은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생산을 위한 투입재가 될 수 있는 생산재’를 자본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자본은 빌딩이나 기계, 공장건물 그리고 인적자본같이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물리적 투입물 모두를 포함한다. 이때 물리적 자본의 양(量)은 보통 화폐단위로 나타냄으로써, 화폐와 실질자본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다. 특히 개인들의 경우 빌딩이나 기계를 타인에게 매각해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빌딩이나 기계는 자본이고, 화폐는 화폐여서 둘 사이에 구분이 확실하다. 화폐자본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높은 이동성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한 지역의 금융기관에서 다른 지역의 금융기관으로 순식간에 이동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작은 금리 차이에도 많은 양의 화폐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화폐와 마찬가지로 실질자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질자본은 토지와 노동, 건물, 기계, 기업가 정신 등 생산에 꼭 필요한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화폐보다 이동성이 훨씬 떨어진다. 특히 공장 건물이나 무거운 기계는 한번 입

지하면 거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한 장소에 묶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실질자본은 이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개인은 그러한 자산을 팔아서 다른 지역에서 다시 구입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실질자본도 공간상 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만일 사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그러한 실질자본의 가치는 전혀 없을 수도 있으며, 철거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오히려 가치가 음(-)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의 지역 간 이동은 자본의 한계생산성 차이로 발생하는데, 자본 수익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 과정에서 저개발 지역의 발전을 돕고, 지역의 경제구조나 개발수준이 좀 더 비슷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1. 자본이동의 경제적 효과

자본은 노동에 비해 지역 간 이동이 훨씬 자유롭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 간 자본이동은 지역에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을까?

(그림 5.2)에는 A 지역과 B 지역에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달라 두 지역의 자본가격이 다르다는 가정하에서 그려진 그림이다.

직선 M_A 와 M_B 는 양 지역의 자본스톡(이때 노동은 주어진 것으로 한다)과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결부시킨 선이다. 양 지역 간 자본이동이 있기 전 초기 자본스톡은 A 지역은 OM , B 지역은 ON 이다. 따라서 A 지역의 자본가격은 P_A , B 지역의 자본가격은 P_B 이다. 일반적인 경쟁시장에서는 자본 1단위당 이윤은 그것의 한계생산물과 같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A 지역의 총생산은 $a+b+c+d+e$ 이며, 이 중 자본의 총이윤은 $d+e$ 이고, 나머지 $a+b+c$ 는 노동의 몫이다. 이와 유사하게 B 지역에서의 총생산은 $f+g+i$ 이고, 이 중 자본의 이윤은 $g+i$, 노동의 이윤은 f 이다. 자본에 대한 대가가 A 지역보다 B 지역이 더 높는데, 이는 B 지역의 생산환경이 더 유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자본이 높은 수익을 찾아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동하며, 이 이동은 두 지역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균등해져 (A 지역에서는 OL , B 지역에서는 OP 크기의 총스톡량) 자본의 가격이 P^* 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이룰 때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새롭게 도달한 새 균형점을 이전의 상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양 지역 모두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준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보자. A 지역의 경우 자본이동 후 A 지역 내 생산은 $a+b+d$ 로 줄어들지만, B 지역에 투자된 A 지역의 자본(NP)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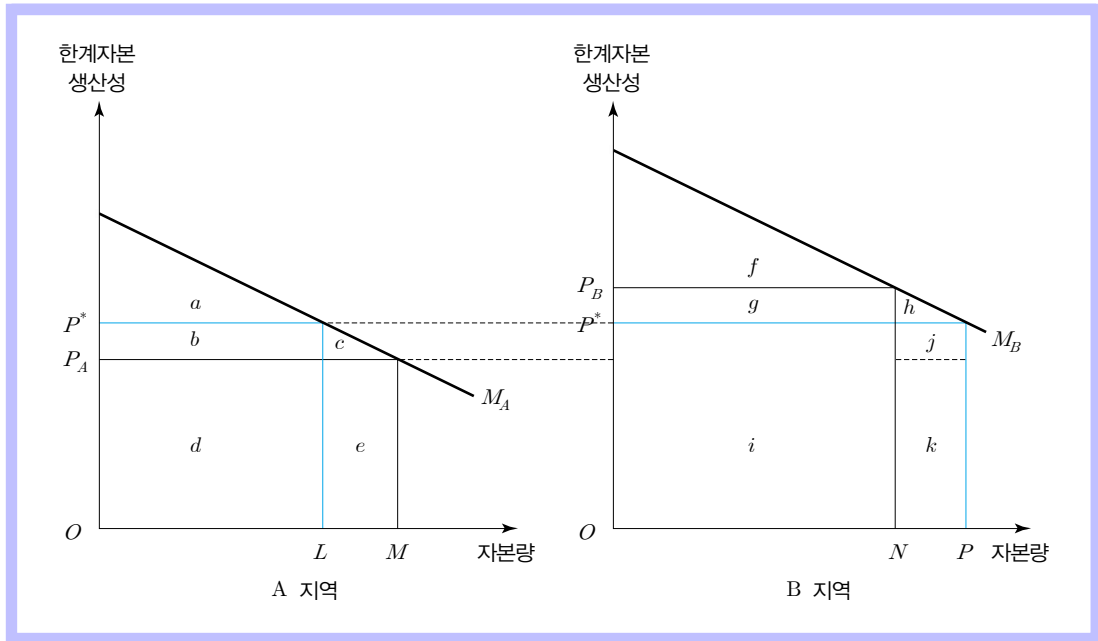


그림 5.2 자본의 이동효과

이윤의 송금(즉, $j+k$)을 고려하면($e=k$ 라고 하면) A 지역의 생산은 전체적으로 $(j-c)$ 만큼 증가한다. 한편, B 지역은 지역 내 생산이 $h+j+k$ 만큼 증가하지만, A 지역으로의 이윤송금($j+k$)을 빼고 나면 B 지역 내 생산은 h 만큼 증가한다.

주체별로 보면 A 지역의 경우 자본의 일부가 유출되어 B 지역으로 투자되므로 A 지역의 노동자 몫은 줄어들고($a+b+c$ 에서 a 로), 자본소유주에게는 ($d+e$ 에서 $b+d+j+k$) 유리하게 된다. 반대로 B 지역의 경우 외부자본의 유입에 따른 공장이나 대형사업장의 확대로 노동자의 몫은 늘어나고(f 에서 $f+g+h$ 로) 자본소유주에게는 ($g+i$ 에서 i) 불리하도록 바뀐다. 그림에서 b 는 A 지역 내에서 노동자 몫이 자본가로 소득재분배된 것이고, g 는 B 지역 내에서 원래 자본가 몫이 노동자에게 소득재분배된 것이다. 이러한 자본이동을 통해 양 지역에서는 $j-c+h$ 만큼의 순소득 증대가 발생했고, 이것은 순수하게 자본의 한계생산력이 높은 곳으로 자본이 재배치되면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자본이 지속적으로 한 지역에만 집중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요소이동이 필연적으로 모든 지역에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고, 자본이 계속 유출되는 지역으로부터 반발을 유발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2. 자본이동의 장애물

앞의 절에서는 자본이 완전히 이동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자본이동이 각 지역에 가져오는 이익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본이동은 단순히 자본이 자본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또한 자본이동에 드는 비용이 전혀 없으며, 자본시장이 고도로 발달되어 전국 금융기관에 의해 모든 지역에 자본이 골고루 공급된다는 전제하에서 도출된 결과이다. 그러나 실제로 자본이 이동할 때는 투자지역의 투자위험도, 자금공급자의 성향, 지역 및 정부의 지원정책, 지역의 투자환경 등 많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과거 자본의 투자형태는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지리적 이동성을 줄였다. 기업들의 정보수집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잘 아는 지역이나 내부 사정에 밝은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또 기존의 설비가 있는 곳에 입지하는 것이 전혀 설비가 없는 지역에 입지하는 것보다 낮은 한계비용을 가진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업임원들이 이전의 입지선정이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막는 정신적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은 자본의 이동을 제약한다.

일반적인 투자형태는 지리적 선택의 폭을 제한하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투자가 수익이 높은 지역으로 흘러가는 것을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 그러나 높은 수익지역으로 투자가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자본 흐름을 제한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자들은 자본을 투자할 때 투자수익률을 계산하기보다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근접한 지역, 고향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자신이 잘 알고 있어 불확실성이나 투자위험이 적고,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어 타 지역에 투자할 때보다 정보비용이 적게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에서도 자주 지역 간에 상당한 양의 자본이동이 발생한다. 이때의 자본이동은 지역 간 투자수익률을 계산해 결정하기보다는 각 기업 내부의 확장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가 주도하는 자본투자 흐름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나 지역주민 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지역정책 등에 따라 결정되고 투자수익률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또한 특정한 투자계획은 투자규모가 방대하고, 내용상 분할할 수 없을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투자계획이 실행되어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거나 계획이 취소되어 아예 자금 이동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